

쥐스킨트 열풍, '제발 그냥 놔두시오'

각 대형서점마다 수위에 올라...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

《좀머씨 이야기》와 쥐스킨트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올해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좀머씨...》를 앞세운 쥐스킨트 책의 잔치판이다. 서울 시내 대형서점에서 집계하는 순위도 《좀머씨...》가 천하통일을 이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향수》《콘트라베이스》《비둘기》 등 《좀머씨...》에 앞서 나온 쥐스킨트 책들이 모두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깊이애의 강요》는 출간 한달만에 2쇄 4만부를 찍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의 순위 추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폭발적 반응의 원인

영풍문고 베스트목록에는 쥐스킨트의 《좀머씨...》가 95년 4월에 처음 등장하는데 소설종합 8위, 외국소설 4위를 기록한다. 6월에는 전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지만 7월~12월에는 2,3위의 상위권을 유지한다. 전국 각지의 서점과 함께 집계하는 종로서적의 목록에는 10월에 19위로 진입,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다. 나온 지 2년 넘는 책은 스테디셀러로 분류, 따로 집계하는 교보문고의 소설 순위에는 9월에 5위로 랭크된다. 10월에는 9위로 떨어졌다가 11월부터는 순위가 올라간다.

《좀머씨...》는 스테디셀러다. 대체로 베스트셀러에서 스테디셀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이 책은 반대의 길을 밟았다. 이럴 경우 《홀로 서기》처럼 지방에서 독자를 뺏아들이는 책이 부상해 수도권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통례인데 《좀머씨...》는 여기서도 벗어난다. 특히 방학 때 판매량이 수직상승한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지요.” 교보문고 소설 코너 권은정씨의 말이다.

출판사가 밝힌 판매량은 지난해까지 10만권(이것도 지난해, 특히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이고, 올해는 5월까지만 40만권에 달한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의 원인은 무엇인가? 밀리언셀러의 시대가 저물고 출판계가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에 빠진 상태에서 《좀머씨...》의 선전은 분명 연구대상인데, 정확한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출판 시황에 민감한 일간지 담당 기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때늦은 느낌이고,

이제는 문예 계간지들도 관심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출판사의 안목도 한문

《좀머씨...》와 쥐스킨트 현상을 보는 시각은 확산하는 독자층과 맞물려 다양하지만 몇개의 요인으로 수렴한다. 그 첫째가 열린 책들의 안목과 단단한 책 만들기다. 많은 관측자가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권당 5%의 저자인세를 지불하지만 선인세(계약금)는 2천 달러인 점이 이를 말해준다. “처음에는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책을 죽이기 싫어 다른 책을 광고할 때 《좀머씨...》를 빼놓지 않고 곁들였다.” 윤희기 편집주간의 말이다.

열린책들은 12명의 식구를 가진 작은(?) 출판사다. 러시아 문학의 번역물로 출발,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예코, 베르베르, 쥐스킨트의 성공으로 확고한 기반을 잡았다. 이제는 열린책들에서 나오는 책이면 무조건 구입한다는 독자도 많다. 이런 독자에 대한 보답으로 출판사 시작부터 기획했던 《도스토예프스키전집》을 올해 안에 일부 펴낼 예정이다.

둘째는 《좀머씨...》가 갖고 있는 작품 자체의 매력이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장 자크 상페의 파스텔톤 수채화와 어우러져 매력을 발산한다. 셋째 이유는 한국문학의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나오는 국내소설은 《좀머씨...》가 오히려 우리나라 소설가의 작품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낯설다. “나는 그럴 때면 그의 얼굴이나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려고 했다.” 국내 문학상을 받은 어느 소설의 한 구절이다.

네번째는 쥐스킨트의 작품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청소년이 갈망하는 바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우리 독자들이 갖고 있는 소시민적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되는 좀머의 말 한마디.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이 말은 쥐스킨트가 세상과 독자들에게 하는 말로도 볼 수 있는데,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결벽증은 유명하다. 이것마저

《좀머씨 이야기》와 쥐스킨트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출판계 불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쥐스킨트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출판사의 텍스트 선택에 대한 자신감 있는 마케팅, 작품 자체의 매력, 독자층의 소시민적 무기력함에 대한 자극 등 몇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다.

서점가의 거센 쥐스킨트 열풍은 돌출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수작쯤으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쥐스킨트의 대인기피가 낡은 결과는 어느 지면이나 같은 그의 사진이다.

또한 《좀머씨...》는 하나의 작품이라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얼마나 다르게 수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정처없이 걸터다니기만 하는 좀머씨의 방황이 나치즘과 2차세계대전의 상흔이라는 암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들은 무위자연의 도교적 세계관을 읽는다.

《좀머씨...》는 우리나라 문화지형의 반영물이면서 거꾸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안도현, 광재구, 원재길 등 중견작가들이 펴낸 우화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쥐스킨트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가운데 안도현 시인의 《연어》는 발간 석달만에 3만부가 나가는 ‘이변’으로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유행따라 읽는 독서행태도 요인

워낙 쥐스킨트의 책들이 잘 팔리다 보니, 판권을 둘러싼 다툼도 치열하다. 《깊이애의 강요》에 수록된 세계의 짧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승부〉가 계간 《문학동네》의 특집에도 〈체스〉라는 제목으로 실려 문제가 되었지만, 스위스의 디오게네스 출판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열린책들이 양해하는 선에서 일단락.

사실 주체적인 독자가 되지 못하고 유행따라 책을 읽는 독서행태가 쥐스킨트 열풍의 한 요인임은 부정하지 못한다. 우리 독서품토의 저간의 사정을 알기라도 하듯 쥐스킨트는 다음과 같은 독서론을 펼친다.

“모든 노력을 다해 망각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책을 읽을 때 완전히 파묻히지 말고, 분명하고 비판적인 자각으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며, 발췌하고 메모하고 기억력 훈련을 해야 한다.”

쥐스킨트 현상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돌출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까지 열풍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영향 파악의 작업은 후일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좋은 작품을 잘 번역, 공들인 편집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내면 독자는 반드시 있다”는 열린책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증거가 바로 《좀머씨...》 돌풍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중간점점의 맺음말이다.

—최성일 기자